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2월 2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3장 12-22절

설교제목 :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12-13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드러납니다.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으로 번역된 ‘쉬스트로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행19:40에서 ‘불법집회’로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당은 음모가 숨겨진 불법적인 모임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멸절하기 위하여 당을 짓고 있는 반기독교 세력이 존재합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은 연합하고 힘을 합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한 유대인들의 당처럼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혈안입니다. 반기독교 세력은 2007년 아프카니스탄에서 모기독교선교단체의 회원들이 피랍당한 사태를 계기로 기독교를 향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반기독교를 외칩니다. 성경이 불법서적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공적인 기관에서 기독교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각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반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안에 있었기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헤드린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심문하겠다는 명분으로 안토니아 요새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14-15절) 이처럼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죽이려하는 노력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을 암살한다는 것은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암살을 감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그들의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배후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집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 단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반기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파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모든 반기독교 세력의 배후에는 복음전파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집요함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꾀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지키시고, 로마에까지 무사히 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암살 계획은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습니다.(16-17절)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반기독교 세력들로 인해서 어떤 위협에 처해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자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1903년과 1909년에 절망의 시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뜨겁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민족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켰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이 민족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면 우리 민족도 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곳은 교회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 18-19절에 보면, 천부장은 친절한 행위를 보여줍니다. ‘조용히’로 번역된 ‘카트이디안’은 ‘사적으로’란 뜻인데,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 바울을 살리기 위한 행동에 착수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반기독교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한다’, ‘교회사명을 잘 감당해야한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한다’,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야 한다’, ‘반기독교적 세력을 인지해야 하고, 변증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등의 많은 대답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의 구절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20-22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이 보낸 청년의 말을 의심없이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천부장이 바울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부장도 처음에는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간 애굽 자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핍박 속에서 결코 위축되어지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요셉 하트 목사**가 작곡한 찬송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하트라는 분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신론을 퍼뜨린 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해서 목회에 헌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철저하게 구별되는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반기독교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문화, 예술, 교육, 정치, 사회 각 방면에서, 기독교를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탄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참된 군사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을 죽이려는 유인들의 음모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2)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반기독교 단체들의 활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반기독교 단체를 대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